



WWF

ANNUAL
REVIEW

KR

2018



together possible™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1961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자연보전기관으로, 세계 100여 개국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500만 명 이상의 후원자들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는 지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도하며, 환경오염 및 불필요한 소비 절감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10년간 자연보전 활동을 해왔으며 2014년 공식적으로 WWF-Korea가 설립되었습니다.

제목: WWF-Korea 연간보고서 2018

발행인: 윤세웅

발행처: WWF-Korea(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발행일: 2018년 11월

디자인 작업: 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 NASA

본 보고서 전체를 복제하거나 일부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 아래 인용 표시를 참고하여 출처를 표기하고 위에 열거된 기구에 저작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인용 표시: WWF-Korea 연간보고서 2018

© Text and graphics 2018 WWF-Korea

All rights reserved



이 보고서는 세계산림책임관리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로부터 인증받은 종이와 방식으로 인쇄되었습니다.

목차

인사말	4
WWF 소개	6
한국의 우선 보전 과제	8
기후·에너지	10
해양	18
시민과 소통하는 WWF-Korea	24
보고서	31
파트너십	32
전 세계 WWF 보전 활동과 소식	34
2018년 회계 정보	38

이사장 인사말



WWF-Korea
이사장
손성환

올여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염과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홍수, 가뭄, 허리케인, 태풍,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강도와 빈도가 강해지면서 지구의 복원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은 국제사회가 급박한 기후변화 위기를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야기될 범지구적인 현상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전 세계가 협력하여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기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WWF-Korea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을 제시하는 <지속가능한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장·단기적인 면밀한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과 올바른 대응으로 생태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얻는 혜택을 객관적이며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WWF-Korea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신속하고 선도적이며 전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의 해양 분야도 WWF-Korea가 집중하고 있는 보전 활동영역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제도와 정책을 포함해, 생산 주체인 기업과 일반 소비자를 연결하여 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식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한국 사회에 확대하고자 정부, 기업, 어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WWF-Korea는 설립 이후 한국 사회에 해양과 기후·에너지 분야에 대한 비전과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연대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한국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자원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적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일에 사명 의식과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WWF-Korea 임직원과, 항상 우리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후원자님께 2018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무총장 인사말



WWF-Korea
사무총장
윤세웅

2014년 WWF-Korea가 설립되고 네번째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WWF-Korea는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와 대한민국 생태발자국 보고서를 시작으로, 특히 해양보전과 기후·에너지 분야에 걸쳐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보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저탄소 사회 실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1년 여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50년 대한민국은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보고서와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SBTi 파일럿 사례와 글로벌 기후변화 리더십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끌어내고 협력의 플랫폼을 확고히 구축할 것입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로 수산물 생산과 소비에 있어 세계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수산기업의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어업과 수산물 유통을 실현하고자 WWF-Korea는 기관과 함께 컨퍼런스, 인식제고, 보고서 발간, 워킹그룹 논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보전 활동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CSR에서는 아직 낯선 글로벌 자연보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의 사례를 전파하고자 올해부터 별도로 파트너십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개인과 정부, 기업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어스아워(Earth Hour)와 지구에도 휴식을 주자는 의미의 힐링 나이트 요가, 기후행진 2018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탈석탄이 필요하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자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WWF-Korea의 자연보전 활동을 널리 알리고 많은 이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방승인 타일러 님 외에 배우 박서준 님과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신수지 님께서 새로이 홍보대사로 합류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후원자님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WWF-Korea는 더욱 많은 활동과 성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과 찾아진 자연재해, 즐겨 먹던 어족자원의 고갈과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해양 환경에 대한 자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우리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성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위기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후원자님과 함께 지구의 생명다양성을 살리고 자연 파괴를 줄이고 우리의 지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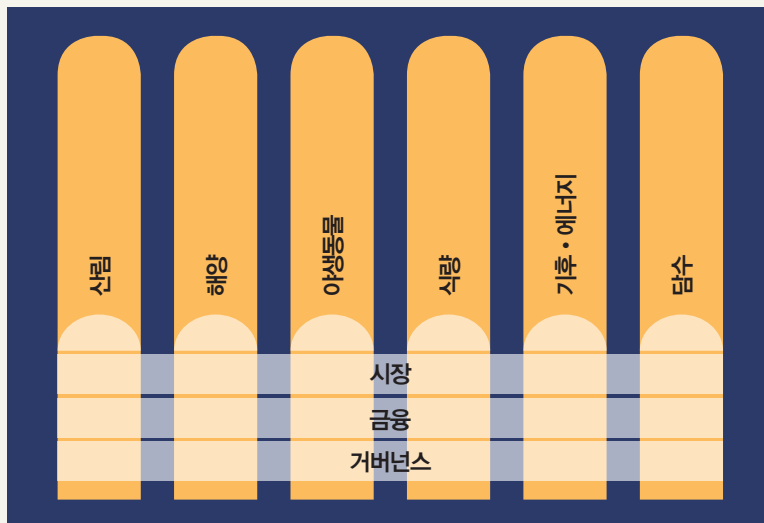
WWF는
생태발자국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하여
자연과 인류가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소개

1961년 스위스에서 World Wildlife Fund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으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자연보전 활동을 펼치는 기관이나 보전 기금 조성이 미미하던 시기에 점차 지구 전체, 즉 생태계를 위협하는 자연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 영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1986년 기관명을 World Wide Fund for Nature로 변경하고 자연 훼손을 막고 인류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구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지역에서 보전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으며 500만여 명의 후원자와 1600만이 넘는 소셜미디어 팔로워와 함께 하고 있다. 매년 전세계 자연보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를 대상으로 한 신뢰도나 활동 평가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세계 최대 최고의 자연보전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신뢰는 과학적인 접근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보완적인 협력에 기반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에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에너지와 해양, 야생동물, 산림, 담수, 식량 6개 보전 영역과 각 영역에서 보전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 금융, 거버넌스 3개 동력(Driver)을 포함한 모든 영역별로 글로벌 목표와 핵심 전략,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 역량을 공유하고 있다. 하나뿐인 지구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멸종위기 생물종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국가 및 지역에서 WWF 네트워크가 협력하여 지역적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를 바탕으로 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학전문기관과 함께 지구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를 발표하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발자국 감축에 관한 <지구생명보고서>를 격년 발간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보전활동을 계획·실행하고 국제회의의 참여,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금융이 자연파괴를 피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지원하도록 노력하며, 자연자원으로 산업 활동을 하는 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보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류와 산업활동의 모든 발류체인에 걸쳐 지속가능성이 추구될 수 있도록 측정·평가 가능한 과학적 지표를 제시, 인증프로그램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연에 접해 생활을 유지하는 지역주민의 삶도 보호되도록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WWF 글로벌 목표

기후·에너지

기후변화에 회복력있는 저탄소 사회 구축



해양

생산적이고 회복력있는 해양생태계 도모와 이를 통한 인류의 생계수준 향상



야생동물

생물 개체 수 회복 및 종 보전



산림

산림 보전과 이를 통한 인류의 웰빙 증진 및 유지



담수

사람과 자연을 위한 담수 보전



식량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마련



동력

시장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 전환



금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민간 재원 증가



거버넌스

목표를 달성하는데 바탕이 되는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정책 강화



WWF 우선 보전 과제:
기후·에너지
해양



기후 · 에너지

최근 IPCC는 1.5°C 특별 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이 2°C인 경우 자연 훼손이 감당하기 힘들고 인류의 생존이 힘들어지는 데 비해 1.5°C로 대기 평균기온의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면 환경 파괴 수준이 훨씬 큰 차이를 보이게 됨을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 보다 명확히 하고 지금 곧바로 인류가 행동에 나선다면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C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석탄과 석유 중심으로 발전한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의 삶은 편리하고 윤택해졌지만, 이로 인한 자연 파괴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은 범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국제적인 패러다임 변화는 단순히 지구 환경적 필요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대비 석탄, 석유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의 발전단가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스스로 폐쇄의 결정을 유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석유화학 중공업과 같은 대기업 위주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는 에너지나 전기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독점하며 저가격으로 제공하였다. 덕분에 오늘 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성장과 자유로운 에너지 소비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왜곡이 시장경제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전 세계에 부는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기회마저 놓치게 되며 점차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다. 세계 8위의 탄소배출국이자 OECD 선진국으로서 한국은 보다 적극적 탄소배출 제한과 에너지 전환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춰 탈석탄, 탈원자력, 재생에너지 전환의 정책 기조를 선언하였지만 국민적인 이해와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인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WWF-Korea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에서 2050년 대한민국 에너지 포트폴리오 비전 및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산업계의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반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 의지 선언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컨퍼런스, 간담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저탄소 비전 및 로드맵 수립 정책 제언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 연구 및 재생에너지 확장을 포함한 정책 제언
- 실행 가능하고 장기적인 비전 및 로드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와 협력 구축

기업의 기후행동 촉진

- 파리협정에서 산업화 대비 평균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자는 목표에 기반하여 'SBT(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온실가스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참여 유도
-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목표 설정 및 이행 지원

저탄소 비전 및 로드맵 수립 정책제언

기후변화 완화 목표 수립 정책제언

2017년 11월, 태평양에 위치한 섬 국가이자 기후변화 피해국 중 하나인 피지(Fiji)가 의장국을 맡은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3)가 독일 본(Bonn)에서 열렸다. 기후협약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190여 개국 대표단과 WWF를 포함한 옵저버 등 약 25,000명이 모였다.

현재의 자발적 공약(NDCs)으로는 온도 상승을 1.5°C는커녕 2°C 이내로 제한하기에도 부족하며 향후 몇 년은 완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감축 목표 상향, 기후금융 강화, 기술 협력 및 역량 구축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인류와 자연이 직면하는 위험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WWF는 COP23에서 아래 3가지 의제를 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제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2020년 이전에 기후행동 실행: 당사국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기후행동 강화
- 2018년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의 로드맵 마련: 국제 사회의 전체적 노력을 점검하고, 2020년까지 현 자발적 공약(NDCs)의 상향 조정을 포함하여 현실과 목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2018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의 로드맵 설정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 텍스트 작성: 2018년도까지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협상 텍스트로 작성하고, COP24에서 채택되기 위한 탄탄한 프로세스 수립

에너지 전환 목표 및 로드맵 수립 정책제언

에너지 전환 2050 비전 수립

에너지 전환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전 세계가 극복해야 하며, 기후변화 완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대기오염 완화,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이다.

WWF는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 제안을 통해 2050 에너지 비전과 로드맵을 제안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국내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 및 도전 과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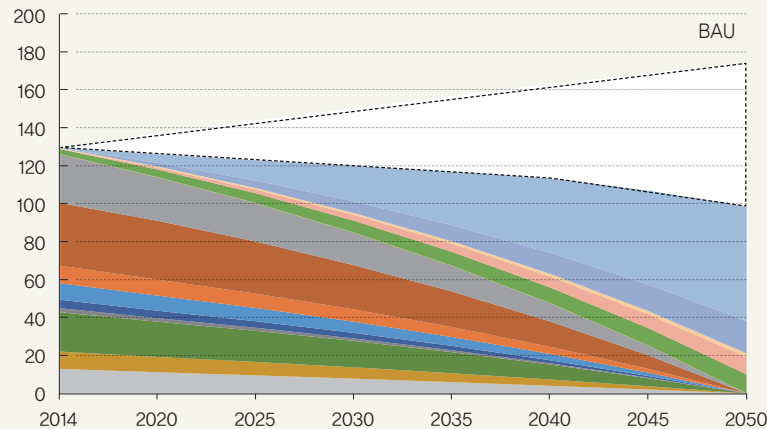
WWF는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이중 '비전형 전환 시나리오(VTS,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에서는 2050년까지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3가지 시나리오의 소요 비용(투자, 운영유지, 연료 수입, 환경 외부 비용)을 추계한 결과, VTS의 소요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103.4%로 차이가 크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할 추가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VTS처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경우, 2014년 540.6 백만 톤 CO₂eq에서 2050년 32.2 백만 톤 CO₂eq으로 94%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전형 전환 시나리오(VTS) 최종에너지 소비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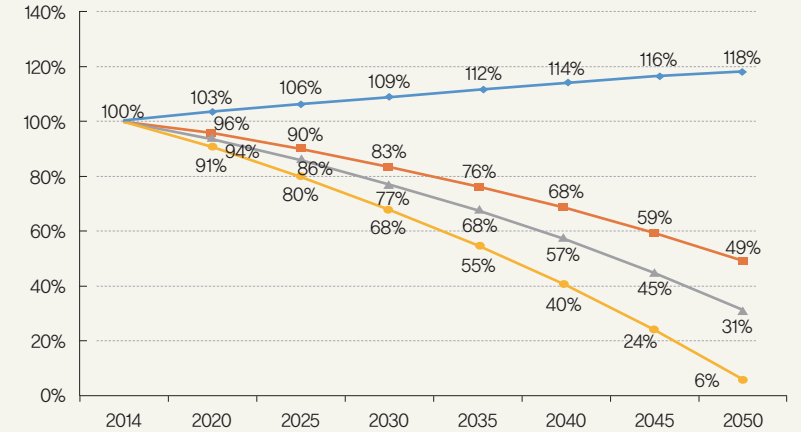
- Nuclear
- Gasoline
- Diesel
- Kerosene
- Jet Kerosene
- Residual Fuel Oil
- LPG
- Avgas
- Natural Gas
- Coal
- Geothermal
- Bio
- Ocean
- Hydro
- Wind
- Solar
- BAU



시나리오별 기준연도 대비 (2014년) 온실가스 감축량

범례

- BAU
- Moderate
- Advanced
- Visionary



에너지 전환 2050 비전 런칭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이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서울시청에서 2017년 8월 23일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분야의 공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기에, 화석 에너지 생산량을 줄이되 국내에서 에너지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100% 공급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WWF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 사회가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그중 에너지 부문을 재생에너지 100%로 공급하는 '비전형 전환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까지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하였다. 동시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강력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업의 기후행동 촉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비즈니스 변화

WWF는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생산 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임업과 어업, 농업, 임업, 농업을 위한 글로벌 인증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로 검증된 솔루션으로, WWF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환경 경영에 있어 최고의 파트너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WWF 핵심 보전 분야인 기후·에너지에서 기업과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Climate Savers와 SBTi, 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이하 REBA)를 지원하고 있다.

Climate Savers 프로그램은 글로벌 선도 기업과 함께 투명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 저변에 대한 정책적 지지 활동을 펼치는 기후행동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WWF와 CDP, WRI, UNGC가 공동으로 개발한 SBTi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지원한다. REBA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 도시, 공공기관을 비롯한 에너지 구매자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하지만, 미국 및 국제 시장에서 규제로 인하여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 REB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소개하고, 전력회사와 에너지 수요자를 연결하며 에너지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솔루션 제공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SBTi)

SBTi는 기업이 과학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세우고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WWF,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시작되었고, We Mean Business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SBTi 참여 방법은 크게 SBT 설립을 선언하는 1단계와 설립한 SBT를 이니셔티브의 검증을 받는 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SBT 설정을 위해서 SDA(Sectoral Decarbonisation Approach)를 포함 6가지 방법론의 안내한다. 현존하는 산업이 다양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SDA의 산업 부문은 점점 세분화되고 있으며 최근 교통 부문의 SDA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SBTi 참여 기업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소니, 맥도날드, 월마트, 유니레버, 혼다 등 약 140개의 글로벌 기업이 SBT를 설정하였고, 약 500개의 기업이 SBT를 선언을 통해 기후행동에 동참하였다. SBT 선언은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반 기업 외에도 BNP 파리바를 비롯한 몇몇 금융기관도 SBT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REBA)

REBA는 에너지 시장 변화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WWF, BSR, Rocky Mountain Institute, World Resources Institutes가 만든 프로그램이며, 재생에너지 공급자, 수요자, 유틸리티 및 정책 입안자 사이의 솔루션 제공을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100개가 넘는 대형 구매자가 REBA에 참여하고 있으며, The Climate Group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는 The Climate Group의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2025년까지 미국에서 60GW의 추가 재생에너지 추가 구매를 돕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REBA Summit에서는 400명 이상의 에너지 구매자, 서비스 공급업체, 개발자, 금융권, NGO 등이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해 한 곳에 모였으며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Climate Savers Programme

Climate Savers 프로그램에는 볼보그룹, H&M 등 20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참여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하고 이행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 기업과 시장 변화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정책 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Climate Savers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2가지 항목에 대한 목표를 WWF와 약속하고 이행하게 된다. 첫 번째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이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이동수단의 효율화 등 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Scope1의 목표,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Scope2의 목표, 마지막으로 원자재 구매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 전달되기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Scope3에 포함된다. 이러한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서는 SBT가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WWF는 Climate Savers 프로그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선언에 그치지 않고 WWF의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지원 관리 아래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 항목으로는 참여 기업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시장과 정책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저탄소 경제로의 혁신적인 전환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키며 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선도기업 간의 긴밀한 네트워킹 기회를 확보하고 환경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는 적극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다자간 협력 플랫폼 마련

Climate Action Round-Table 개최 (2018년 1월)

WWF는 2018년 1월 31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Climate Action Round-Table을 개최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국내 기업이 파리협정 이후의 신기후체제 아래 글로벌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후변화 대응 도전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CDP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SBTi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경영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는 탄소 문제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WWF Climate Savers 프로그램 파트너 기업으로 글로벌시장에서 기후행동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볼보 그룹 한국법인에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 정량적, 정성적 성과 또한 소개하여, 실제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절감, 효율성 제고 방안 사례에 대해 공유하였다.



© WWF-Korea



양자간 협력 구축

SBTi - Pilot Studies 진행 (2017년 5-10월)

국내 기업의 SBTi에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WWF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SBTi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과감하게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상호 합의된 3개 기업(LG전자, 아모레퍼시픽, 한국지역난방공사)과 SBTi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기업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체험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였다.

약 6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시범 프로젝트에서 국내 기업이 공통으로 Scope 2의 전기 사용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을 발견하였고, 다음 단계에서는 기업이 공동으로 국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REBA 참여 (2018년 6월)

WWF는 글로벌 리더 기업인 삼성전자가 기후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왔다.

특히 삼성전자가 2018년 6월 14일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확대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단체)인 BRC(Business Renewable Center)와 WWF의 REBP(Renewable Energy Buyers' Principle)에 가입하기 위한 정책 제언과 솔루션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WWF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태양광·지열 발전 등 직접 생산하고, 글로벌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데 있어 더욱 강력한 기후행동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것이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바다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바다를 근간으로 삼는 수산업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7년 총어업생산량 374만9천톤)과 바다를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인구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원양산업은 초고속 경제성장 시기에 성장을 이끄는 주요 산업이었으며, 우리나라는 수산식품 주요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작년에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이 세계 14위의 국제 수산물 생산국 입지를 점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 1인당 수산물 소비 1위(2016년 한국 1인당 수산물 소비량 58.4kg, 전 세계 평균 24.7kg)에 달하는 수산물 소비 대국이며, 2017년 기준으로 수산물 수출은 54만톤이지만 수입은 550만톤에 이르는 수산식품 10대 수입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생산 능력을 넘는 과도한 남획과 현대화된 어업 도구를 이용한 대규모 혼획으로 해양 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의 서식지 파괴와 플라스틱이나 어구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는 상황에서 해양 생물 폐사까지 늘어나면서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어족자원의 보호를 바탕으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간, 산업내 기업간, 수산물 생산 및 유통 과정 전반에 이르는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 어업과 지속가능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WWF-Korea에서도 지속가능 어업을 국내에 확산하기 위해 국내 수산업체나 어업인 단체, 정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서도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어업을 정착시키고 유지하도록 유통, 호텔 등 수산물을 구매하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수산물 구매 선언 및 이행을 유도하고 시민에게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 Daniel Versteeg / WWF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모든 국가가 해양의 10%를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해양습지 27개, 연안습지 6개 총 1,925,99km²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EEZ의 1.4%에 불과하며 수산보호구역을 포함해도 3% 미만에 불과하다. WWF-Korea는 멸종위기 해양생물 중 하나인 바다거북 생태연구 및 서식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 해양생물 보전활동과 해양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서식지 보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해상의 보호구역 확대를 위하여 중국과 한국을 아우르는 황해 보전 활동에 참여함은 물론 남극지역의 해양생태계 보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육지에서 비롯된 플라스틱의 해양 오염을 막고 인류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어구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보호구역을 늘리고 효과적으로 관리

WWF-Korea는 서식지 파괴, 먹이 감소 등의 이유로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거나 심지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해양생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인간 생활 영위를 위한 자원으로 보았던 이전의 사고방식에서,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생태계 일부로 보는 것이다. 이는 한 종이 절멸하면 못 보게 되어 아쉬운 것 이상으로, 그 종이 속해있는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춘다. 생태계 구성 요소에서 고래, 상어 같은 상위 포식자의 역할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계 전반을 흐트러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관된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개체 수가 감소하면 성체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초의 일종인 켈프가 급격하게 사라지는 이치다. 해양생물은 또한 바다의 건강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의 역할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바다사자가 적조현상 때 만들어진 플랑크톤의 독소를 섭취한 후 뇌손상으로 폐사하는 일이 높아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얼마든지 인간에게 올 수 있는 문제라 더욱 걱정하게 된다. 해양생물이 살지 못하는 바다는 인간도 살 수 없다. 바다생물에 초점 맞춘 보호활동은 현재 바다거북을 시작으로 상괘이, 점박이물범 등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바다거북보호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 전 인적이 드물었던 해변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는 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분포하는 7종이 모두 IUCN 레드리스트에 올라있을 만큼 종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는 4종의 바다거북(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장수거북, 여기에 최근 올리브각시바다거북이 추가되어 5종)은 모두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목록에 올라있다. 산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지 15년이 넘었고 지금은 대부분이 고기잡이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되고 있다. WWF는 한국 바다거북에 대한 지역민 인터뷰와 문헌조사를 포함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직면한 위기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만약 산란지가 발견된다면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부검연구참여

WWF-Korea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바다거북 부검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WWF-Korea와 함께 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 한화아쿠아플라넷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폐사 원인 분석, 기생충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생물학적 연구들을 수행 중이다. 가장 주목받은 폐사 원인은 해양쓰레기였다. WWF-Korea는 부검시 소화장기를 가득 메운 어구와 생활 쓰레기 등 해양쓰레기를 대중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해양플라스틱 오염과 폐어구 등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실시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출현하는 바다거북에 대한 산란, 이동, 섭이 등 기초 생태 연구와 해양오염, 그물 혼획 등 위험요소 파악 및 제거, 대중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바다거북이 떠나지 않는 바다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 WWF-Korea



해양보호구역(MPA)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 해양생물의 서식지, 그리고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는 지역으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소중한 해양자원을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전 세계 바다의 4%에 불과한 MPA를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는 아직 1.6%에 불과하다. MPA로 지정된 바다의 이점은 이미 여러 각도로 연구되었다. 해양보호구역을 10-30%로 늘릴 경우 경제적 가치가 4,900억~9,200억 달러에 이르고 15-18만개 일자리를 생키며 생물의 크기, 다양성, 밀도, 생물량, 산란 모두 13 - 25%까지 증가한다. 심지어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해주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WWF는 전 세계 현재 가장 필요한 우선지역 14곳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선정하였는데 WWF-Korea는 이중 세 곳에 집중하고 있다. 가장 집중하는 곳은 바로 제주를 포함한 황해 지역이며, 무려 전 세계 인구의 10%가 살고있는 곳이다. 두번째는 남극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파괴되어, 전 세계 인류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이후 한국인의 가장 인기있는 휴가지 중 한 곳이며 어업과 수산물 수출입도 활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호초 삼각지대(Coral Triangle)도 고려 대상이다. WWF는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에 참여하고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해양쓰레기

최근 각국 정상들이 모여 미래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제가 쓰레기다. 한 해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의 양은 8백만톤이며 이중 80%는 육상에서 기원한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많게 될 것이다. WWF는 플라스틱 오염 없는 바다를 실현시켜 안전한 바다환경, 먹거리를 지켜내고 해양생물에 안전한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해 2035년까지 바다로 가는 쓰레기의 양을 80-100%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정했다. 먼저 생산단계에서 생분해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올바르게 선택하고 실천하도록 도우며, 쓰레기 수거, 재활용 기술 증진과 함께 수명을 다한 플라스틱의 적절한 처리 등 올바른 플라스틱 순환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WWF는 전 세계 주요 관광 도시를 시작으로 '플라스틱 오염 없는 도시'로 이행을 함께하며 필요한 세부계획도 만들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대규모 연중 캠페인도 기획 중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대중 의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과 세부 실태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한국의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보고서 발간을 계획 중이다. 또한 기업 및 판매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대체재 개발과 수거 처리 책임제를 기획 중이다. 또한 연구를 통한 과학적 이해를 강화하고 이에 관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수립할 것이다.

© Brent Stron / Getty Images / WWF-UK



지속가능한 어업 두 배로 늘리기

지속가능한 어업은 어업의 대상 어종이 일정한 개체 수를 유지하고, 대상 어종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대상이 아닌 생물을 혼획하지 않는 어업을 말한다. 어업인과 정부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관리하는 국가 및 국제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위한 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대만, 스페인과 더불어 전 세계 5대 원양대국 중 하나이며, 5개 나라의 생산량은 전 세계 원양어업 생산량의 85%를 차지할 정도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어종인 다랑어를 보호하고 원양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어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WWF-Korea는 한국 원양기업, 정부와 협력하여, 원양어업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이력추적성과 정보투명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원양선사 MSC 심사 및 인증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은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을 인증하는 글로벌 인증제도로, WWF와 유니레버사가 협력하여 1997년이 설립하였다. 올해로 탄생 20주년을 맞은 MSC는 객관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인증제도로 전 세계 수산물의 약 12%가 MSC 인증을 받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MSC는 수산물 생산, 소비, 유통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시민사회의 이익을 반영하는 절차를 필수 심사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WWF는 국내 원양업계의 MSC 인증심사에 참여하여 수산자원의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 시장변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근절과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

2013년 한국은 유럽연합과 미국에 의해 불법어업국 예비국가로 지정되었다. 이에 정부, 시민사회, 업계가 발빠르게 불법어업 근절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2년만인 2015년 불법어업국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어업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바다와 바다 속 생물은 우리 후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할 인류의 공동자산이다. 특히 수산자원은 전 세계 인류의 1/3이상을 위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소비되는 중요한 식량 자원이다. 인류에게 중요한 식량인 수산물을 어떤 바다에서 합법적으로 잡고 있으며,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WWF는 우리의 깨끗한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여, 정부, 업계와 함께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2018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의 힘은 불법어업, 남획, 혼획 등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업으로 잡은 수산물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기반이 된다. WWF는 지난 5월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위한 WWF의 제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장변화를 촉구하였다.





시민과 소통하는
WWF-KOREA

어스아워 2018 캔들나이트

마스크 없이 숨쉬고 싶다

2018년 3월 24일 개최된 어스아워(Earth Hour, 지구촌 전등끄기)는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전 세계가 불을 끄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상징적인 캠페인이다. 올해는 '마스크 없이 숨쉬고 싶다'는 주제로 청계광장에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일상 속 기후변화를 생각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1800여 명의 시민들이 미세먼지 반대 마스크 만들고,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싶다는 청원 메시지 보내고 염원의 촛불을 켜며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었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사당, 서울시청사, N서울타워 등 40곳의 랜드마크가 동참하였으며, 전 세계 188개국, 17,900곳 이상의 랜드마크가 참여했다. 그리고 배우 박서준을 비롯해 배우 이자 가수 자레드 레토, 배우 리빙빙, 테니스 선수 앤디 머레이(Andy Murray)가 동참을 독려했다.

어스아워를 통해 전 세계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 올해 어스아워 또한 세계 각지에서 자연보전을 향한 움직임을 만들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해양 생태계를 위해 5백만 km²의 해양을 보전하고, 케냐 학생들은 벌채를 줄이기 위해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홍콩과 영국에서는 스스로 지속가능한 생활을 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졌다. 콜롬비아는 2020년까지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베지 말자는 국가적 캠페인을 시행하고, 싱가포르에서는 WWF 주도 아래 플라스틱 사용 금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Daebong Kim / WWF-Korea

힐링 나이트 요가

우리에게 힐링이 필요한 만큼, 지구도 힐링이 필요해요

2017년 가을 매일매일 어스아워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WWF는 힐링 요가를 제안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힐링 나이트 요가는 사전 캠페인 영상을 통해 WWF-Korea 홍보대사 신수지가 불을 끄는 요가 동작을 시연하였다. 점점 어려워지는 동작에 쉽지 않냐고 웃음을 유발하며 힐링 나이트 요가를 통해 우리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3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한 힐링 나이트 요가 클래스는 8시 30분에 한 시간 불을 끄는 간단한 행동으로 참여하는 어스아워처럼, 해질녘 노을 아래 푸른 잔디밭에서 어스아워의 뜻을 되새겼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신수지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야생동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기후변화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 Daebong Kim / WWF-Korea



© Daebong Kim / WWF-Korea

WWF-Korea 홍보대사 타일러 라쉬 성화봉송

저탄소·친환경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기원

WWF-Korea 홍보대사 타일러 라쉬가 2018년 1월 6일 용인에서 코카콜라가 선정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친환경·저탄소 올림픽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했다. 올림픽이 세계인이 참여하는 지구촌 축제인 만큼 하나뿐인 지구가 당면한 환경 문제 중에서도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대응의지를 보여주었다.

타일러 라쉬는 “미세먼지 때문에 뛰지 못하는 날이 많아 안타깝다. 스포츠 경기에도 깨끗한 공기가 중요하며 저탄소·친환경 평창 올림픽으로 전 세계가 맑은 공기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우리와 지구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경각심을 울리며 관심을 촉구했다.



한-러 어린이 호랑이 그리기 대회

미래 세대와 호랑이 보전을 꿈꾸다

TX2(호랑이 개체 수 2배 늘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WWF는 한국 호랑이(아무르호랑이)와 한국 표범(아무르표범)이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제6회 한-러 어린이 호랑이 그리기 대회를 후원하였다. 지난 2016년부터 한국범보전기금과 함께 극동러시아와 러시아-중국-북한 접경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한국 호랑이와 한국 표범이 처한 밀렵과 서식지 감소 등 위협을 알리고, 멸종 위기에서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구를 지키는 온도,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C, 기후행진 2018

지구온난화 1.5°C 상수를 제한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인다

2018년 5월 20일,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구를 지키는 온도,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C 기후행진 2018'을 개최하였다. WWF-Korea의 후원자를 포함해 1,000여 명의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며 종로와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였다.

기후행진에 앞서 WWF-Korea 홍보대사 타일러 라쉬를 포함해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자는 뜻을 모았다. 그리고 페이스페인팅과 행진 피켓 만들기, 메모 트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포함해 WWF사무실에서 사전 신청한 후원자를 대상으로 WWF의 보전 프로그램 담당자와 WWF를 가까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충북 진천, 강원도 강릉, 전남 고흥 등 전국 각지에서 같은 뜻을 품고 달려온 후원자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들과 함께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였다



WWF 보전여행: 두루미 탐조

DMZ에서 두루미를 만나다

2017년 겨울, 후원자와 함께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된 두루미 탐조를 다녀왔다. 여름철에는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서식하다 겨울이 되면 강원도 철원에서 겨울을 보낸다. WWF-Korea는 강원도 철원군과 파트너십을 맺고 두루미 보전과 대중 인식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두루미 보전 여행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여행에 참여한 이경하 후원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두루미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WWF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응답이 4.7점(5점 척도)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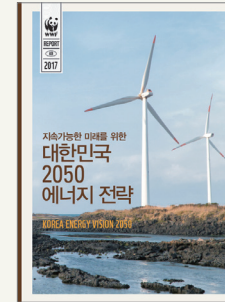
보고서

WWF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분석하고 WWF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2050 에너지전략 보고서

WWF-Korea는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 제안을 통해 대한민국 2050 에너지 비전과 로드맵을 제안하고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국내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 및 도전 과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특히 205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방법에 대한 3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해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100%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약 95%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클린에너지 미래(A Clean Energy Future)’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 등 공해로 인한 오염과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해결책 또한 제시한다.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혁신과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제를 현대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위한 WWF의 제안

무한한 자원으로 여겨졌던 수산물은 고갈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 전 세계 인구의 40%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수산물은 인류의 식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 수산물 섭취량 1위 국가로 수산물은 주요한 식량원이다.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위한 WWF의 제안’은 수산물에 당면한 현재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을 소개한다. 더불어 앞으로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위한 WWF를 활동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



파트너십

WWF-Korea는 보전(Conservation)과 마케팅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맺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의 전환과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과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헤럴드
헤럴드는 WWF-Korea의 가장 오랜 파트너사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며 대중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여 자연보전에 대한 이해도와 소비자 인식을 향상시키며, 특히 WWF가 집중하는 자연보전 활동 전반에 사용되도록 비지정 기부(unrestricted donation)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코카-콜라 물환원 프로젝트
코카-콜라 물환원 프로젝트는 코카-콜라가 음료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만큼, 물부족 지역에 수량을 확보하고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 사회에 환원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코카-콜라 한국지사는 2017년 WWF-Kore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18년 김해시 진례면에 저수지를 준설하고 정화시설을 식재해서 수자원을 확보했다. 낙동강 유역권의 물부족 지역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화포천 및 낙동강으로 흐르는 물의 수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으며, 정부와 기업, 기관이 협업의 시너지를 창출했다는 의미가 있다.



HSBC 습지복원 자원봉사 프로젝트
WWF와 HSBC가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HSBC 물 프로젝트(HSBC Water Programme)'의 일환으로, HSBC 코리아는 WWF-Korea와 습지 복원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HSBC 코리아 임직원과 가족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태안 지역과 한강 유역의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자연정화 활동 및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오대산 산림복원 프로젝트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WWF-Korea와 업무협약을 맺고, 5월 말까지 오대산 국립공원에 돌베나무 식재를 통해 자연경관을 보전하고자 했다.



NH농협생명 농촌 살리기 & 보전여행 프로젝트
NH농협생명은 낙동강 유역에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및 주민 공동체 의식 회복을 돕고자 김해시 진례면의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친환경 농업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철원군과 협력하여 DMZ와 철원 일대를 방문하는 철원 두루미 보전 여행을 후원하였다.



한국씨티은행 자원봉사 & 보전여행 프로젝트
한국씨티은행은 연말에 달력을 제작하는 비용을 WWF-Korea에 기부해 임직원들과 함께 자연보전 활동을 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한양도성과 백사실 계곡에 생태투어를 다녀왔고, 2018년에는 창경궁에서 조경 개선 작업 등을 통해 자연보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삼성물산 에버랜드 리조트 보전여행
에버랜드와 WWF-Korea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멸종위기종과 서식지 보전활동을 위한 인식제고와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태안과 철원 등 국내 멸종위기 생물종 서식지를 탐방하였다.



K2 힐링 나이트 요가 & 오대산 산림복원 프로젝트
2017년 WWF-Korea는 흥보대사 신수지, 아웃도어 브랜드 K2와 함께 '힐링 나이트 요가' 캠페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였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전등을 끄는 요가 동작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은 행동이 힐링이 된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였다. 또한 2018년에 K2는 'Protection for All' 캠페인의 일환으로 WWF-Korea와 '오대산 국립공원 생태 복원'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내 돌베나무 식재를 통해 하천 및 산림 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고자 했다.



애플
애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뿐인 지구의 보전을 위한 인식을 높이고 지구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WWF 및 24개의 앱 개발자들과 협력하여 지구를 위한 앱(Apps for Earth) 캠페인을 진행하여 수익금 전액을 WWF에 기부하였다.



H&M
H&M은 2011년부터 WWF와 함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담수(Water Stewardship)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 H&M과 WWF 파트너십은 담수에서 시작되어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멸종 위기종 디자인의 키즈 컬렉션을 출시하여 수익금의 일부가 자연보전 활동에 쓰이도록 WWF에 기부하였다.



이케아
이케아 그룹과 WWF는 2002년부터 자연 자원을 보전하고 자연과 인간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전개하고 있다. 산림 자원과 담수 자원 보전 활동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도전 과제를 인식하고 기후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위한 WWF의 제안' 발간을 지원하여, 소비자들이 지구를 위한 현명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뉴킷
뉴킷은 제품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멸종위기 생물종이 담긴 문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북극곰과 일각고래를 야광스티커로 제작하여, 어스아워(Earth Hour) 캠페인 참가자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 WWF-Korea



© WWF-Korea



전 세계 WWF 보전 활동과 소식

WWF는 해외에서도 기후·에너지, 해양, 산림, 야생동물, 담수, 식량 분야에 걸쳐 보전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발자국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목표 이행에 힘쓰고 있다.

TX2, 야생 호랑이 보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

2010년, WWF와 13개 국가, CATS, Smart, TRAFFIC이 TX2 캠페인을 론칭하고 2022년까지 전 세계 야생 호랑이 개체 수를 2배로 늘리기 위한 노력의 서막을 열었다. 3,900여 마리로 증가했다고 집계된 야생 호랑이에 대해, 2017년 7월 9일 7번째 세계 호랑이의 날을 맞아, WWF는 전 세계 야생 호랑이가 여전히 불법 거래와 밀렵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WWF는 과거 야생 호랑이 서식지였던 일리-발하쉬(Или-Балхаш)에서의 야생 호랑이 복원 계획에 공동 이행을 발표하였다. 야생 호랑이 서식지 복원은 호랑이 뿐만 아니라 호랑이가 살아가기 위한 일리-발하쉬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영국에서는 소더비(Sotheby's), 11명의 세계적인 예술가와 협력하여 새로운 기금 모금 프로젝트 '내일의 호랑이(Tomorrow's Tigers)'를 론칭하였다. 야생 호랑이를 주제로 제작한 한정판 카펫을 판매한 수익금을 야생 호랑이 보전에 쓰이며, 작품은 2019년 1월 소더비 런던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 Souvik Kundu / WWF

아무르 표범 개체 수 회복

22000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 국경에서 서식하는 아무르 표범은 32마리만이 남아 있었다. 밀렵과 만연한 서식지 손실로 아무르 표범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보전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WWF는 표범 밀렵을 줄이고 지역 사회에 표범 보호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남아있는 표범 살리기(Save each of the survivors)'라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범 서식지에 400개의 카메라 네트워크를 설치하였고 각 표범 무늬의 패턴을 인식하여 정확한 개체 수를 파악하는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러시아 정부의 주도하에 262,000헥타르의 표범 국립공원(Leopard National Park)을 설립했으며 올해 4월, 국경 내의 아무르 표범은 84마리의 성체와 19마리의 새끼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수십년 만에 아무르 표범이 100마리 이상 늘어나, 표범 보전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 Oia Jansen



© Femke Hilderink / WWF-Netherlands

표범 국립공원에 설치한 트랩카메라를 확인하는 모습

더 넓은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 지정

홍콩 해역은 중국 흰돌고래와 푸른바다거북, 산호초 등 6,000종의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다. 이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WWF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홍콩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30년까지 홍콩 해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2018년 현재, 홍콩 해역 인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미래의 바다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WWF는 더 넓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지역공동체와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영국 해역의 24%에 해당하는 해양보호구역은 지역공동체가 해당 해역을 담당하는 지역공동체 책임제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터키의 카쉬(KAS)지역의 해양보호구역은 자연 보호를 중심으로 구축된 관광산업을 만들어내어 장기적으로 문화와 자연을 즐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WWF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하여 남극 해양보호구역을 넓히는데 일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WWF는 전 세계 14곳을 주요 보전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중에는 우리나라의 서해 또한 포함되어 있다.

다뉴브강 인근 철갑상어 보전

철갑상어는 인간의 남획과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질병, 댐의 건설로 인한 이동 경로와 산란지대 차단으로 100년 전에 비해서 개체 수가 7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4월 20일, WWF는 세계철갑상어보전협회(WSCS, World Sturgeon Conservation Society)와 함께 철갑상어 보전에 관한 비엔나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철갑상어 보전에 관한 22가지 권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이용가치가 없어진 구형 댐의 철거 등의 방법으로 댐 시설이 철갑상어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선언문은 불가리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의 이해당사자에게 해당 지역 언어로 전달되었다.



© Andrey Nekrasov / WWF

사탕수수로 만들어진 레고 블록

덴마크의 장난감 제조 회사인 레고(LEGO)®는 올해부터 나뭇잎과 나무와 같은 식물 조각들을 만들 때 화석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이 아닌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으로 제작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WWF와 레고®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레고®는 지난 2013년부터 WWF의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프로그램 Climate Saver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장의 탄소 배출량을 매년 줄여나가며 지속가능한 변화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WWF는 레고® 이외에도 코카콜라®, 나이키® 등 여러 브랜드와 함께 식물 재료를 원자재로 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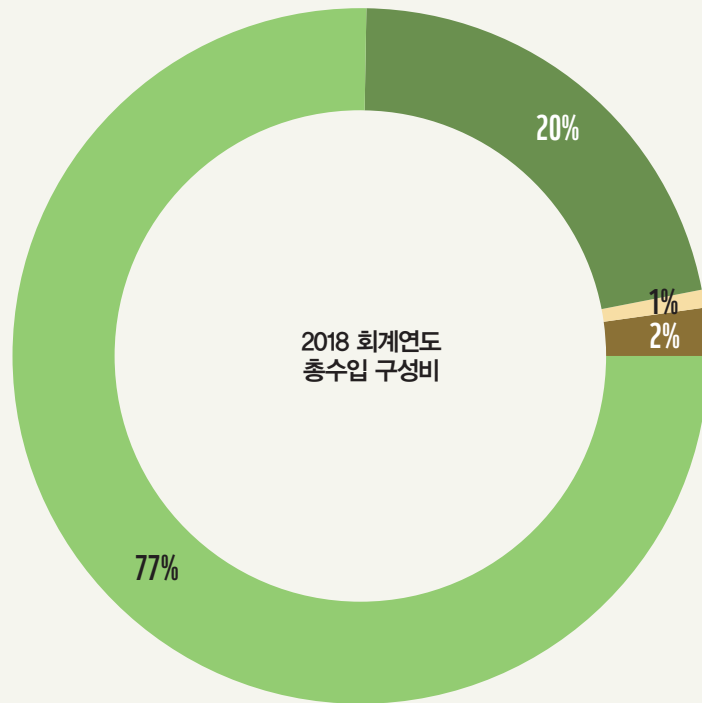
© Lego Group

2018년 회계 정보

WWF-Korea의 2018 회계연도는 2017년 7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인 2018년 6월30 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외부회계감사 과정을 거친 자료입니다. 하단의 재무 정보와 그래프는 총수입과 총지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WF-Korea는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은 5번째 회계연도입니다.

2018 회계 연도는 보전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입되는 정기후원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속가능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WWF-Korea는 지난해보다 총수입이 6%가 증가하게 되면서 재무안정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후원자의 증가는 물론 기업의 후원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 후원은 예년보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연계된 장기적인 후원이 증가한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에는 대한민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후원과 WWF 글로벌 네트워크의 후원금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입 2018 회계연도의 총수입은 4,027백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약 6%가 늘어났다. 총수입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약 77%로 개인 후원자의 후원에 해당된다. 그 외에 기업 후원금은 20%이고 정부 후원금이 2% 그리고 남은 1% 정도가 WWF 글로벌 네트워크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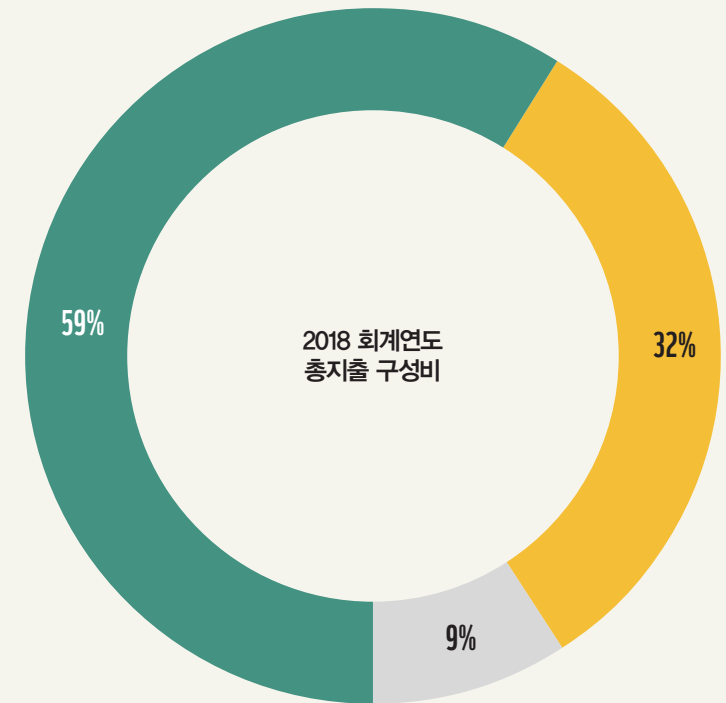


- 개인 후원금
- WWF 네트워크 지원금
- 정부 지원금
- 기업 후원금

지출 2018 회계연도 총지출은 4,385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8%가 증가하였다. 자연보전 프로그램과 인식 제고를 높이는 일에 총지출의 59%를 사용했다. 후원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사용된 기금마련 비용이 32%에 해당한다. 남은 9%가 운영 및 관리비용이다.

해양환경 보전 활동과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활동, 그리고 기업과의 협력에 기반한 습지 복원을 포함한 담수 및 산림 복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전 프로그램에 지출한 비율이 작년 대비 14% 포인트가 증가한 26억 원을 사용했으며, 보전 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WWF-Korea는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자를 확보하고자 기금 마련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보전 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점차 낮아질 것이다.

설립 5년 차에 진입한 WWF-Korea는 보전 프로그램에 총지출의 80%를 투자하도록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기관 운영비용
- 후원기금 마련
- 자연보전 프로그램

WWF-Korea 이사회

이사장

손성환 (前 스웨덴 대사/기후변화 대사)

이사

강희철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박은실 (추계예술대학 문화예술 경영대학원 교수)

성래은 (영원무역 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이병욱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조희경 (가온소사이어티 대표)

홍정욱 (헤럴드·올가니카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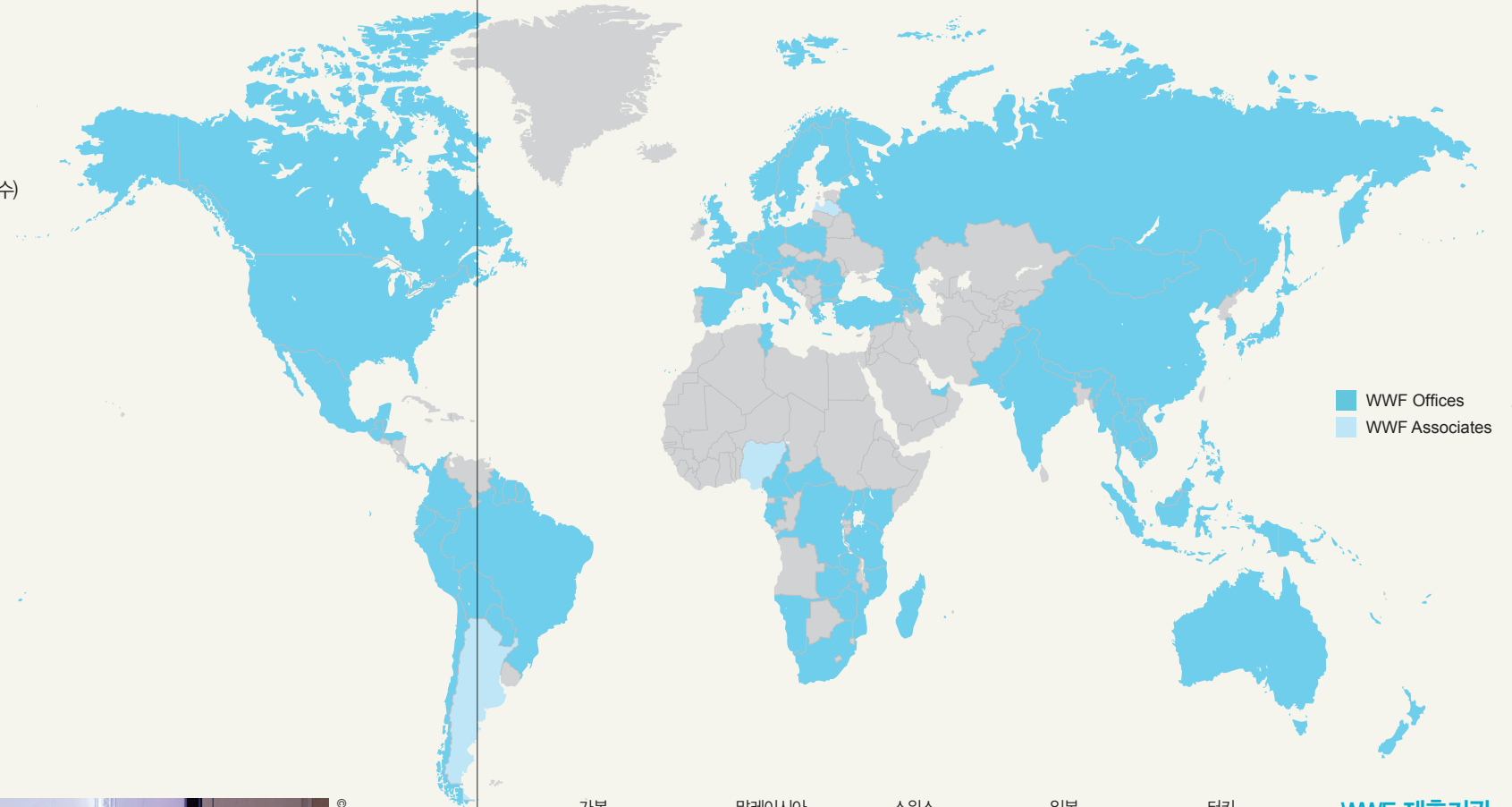
감사

함중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 Daebong Kim / WWF-Korea

WWF 네트워크



■ WWF Offices
■ WWF Associates

가봉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리스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마다가스카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몽골
미국
미얀마
베트남
벨기에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불가리아
브라질
솔로몬 제도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에콰도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간다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잠비아
조지아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칠레
카메룬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태국

터키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폴란드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WWF 제후기관
Fundación Vida Silvestre (아르헨티나)
Pasaules Dabas Fonds (라트비아)
Nigerian Conservation Foundation (나이지리아)

숫자로 본 WWF-KOREA

1961/2014

WWF 국제본부는 196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은 WWF-Korea가 설립된 해입니다.

+ 210,000

21만 명 이상이 WWF-Korea의 자연보전 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00

WWF는 전 세계 6개 대륙, 100여 개국에서 활동 중입니다.

2

WWF-Korea는 해양 보전과 기후·에너지 두 가지 보전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WWF(세계자연기금)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입니다.

wwf.korea.or.kr

© 1986 판다 도형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전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동물기금)

® 'WWF'는 WWF의 등록상표입니다.

